

전통수륙의문의 재차와 그 미학*

이성운**

• 목 차 •

- I. 서언(緒言)
- II. 수륙재의 차서(次序)
 - 1. 현대수륙재의 차서
 - 2. 전통의례문의 차서
- III. 재차(齋次)의 미학
 - 1. 설행의 원융(圓融)
 - 2. 평등과 차이(差異)
- IV. 결어(結語)

한글요약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삼화사·진관사·백운사 등지에서 개설된 수륙재의문의 차서(次序)는, 원형 수륙의문에 영산작법이 선행되는 융합된 수륙재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중례문』과 『결수문』을 저본으로 하고 있으며, 2~3일 간의 설행에 적합하도록 편찬된 차서였다.

전통의례의 원형 의례는 도량결계와 엄정을 하고 상중하위의 존재를 청해 관육하고 공양하고 시식하는 기본 차서는 같지만 의례의 대소 상황에 따라 상위와 중위에는 목욕의식을 삭제하거나, 공양의 경우도 상중하위를 소청(召請)한 다음에 베풀기도 하며, 또 전통수륙재에는 영산작법이 있으며, 대령과 분수작법 등이 추가돼 정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현재 거의 모든 수륙재의 첫 의식이 된 시련의식은 이운의식의 하나일 뿐 오늘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과는 달랐다.

부여백제수륙재의 경우 17세기 평양천변수륙재를 개설한 목적과 장소, 설행주체 등에서 유사하며 그곳에 담긴 원융의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의문과 설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역에 전해지는 전통 『결수문』을 바탕으로 하고 『천지명양범음산보집』의 편제를 수용하여 편집하고, 어산 승려와 보존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면에서 원융성을 구현하고 있다.

또 의문(儀文)에서도 평등의 무차(無遮)를 실현하며, 변식(變食) 등의 의식(儀式)에서 상하(上下)의 차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일반화되고 획일화되어가는 여타 수륙재와 다른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 재회(齋會)의 본질적인 평등 속에서 설단과 공양의 변식의식의 설행이나 동참 대중의 착복(着服)에서 그 차이를 드러나게 하여 수륙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이는 의미에 적합한 의례로 재현하는 것으로 부여수륙재는 설행과 재회의 평등, 차이의 미학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었다.

주제어

부여수륙재, 전통수륙의문, 재차, 천변수륙재, 결수문, 중례문, 무량사, 삼화사수륙재, 진관사수륙재, 백운사수륙재, 변식, 무차.

* 이 글은 2015.9.19. 부여군불교사암연합회 주최 <부여백제수륙재 발전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淨土學研究』 제25집, 2016년 6월, pp.145-177.

I. 서언(緒言)

불교의 전통의례인 수륙제에 대한 연구는 그간, 수륙제 실행의 역사적인 측면과¹⁾ 수륙제의 설단과 장엄과 같은 내부적인 측면²⁾ 또는 선행의식인 영산제와의 관계 속에서의 성격 탐색,³⁾ 현재 일정한 지역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특정 사찰의 수륙제에 대한 연구⁴⁾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어 왔다. 논자는 「현행 수륙제의 몇 가지 문제」⁵⁾와 「현행 한국수륙제에 대한 검토」⁶⁾를 통해 현행 수륙제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해왔다.

수륙제의 ‘수륙’에 대해 학계와 불교계 일반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피력돼 왔다. 첫째, 수륙은 수륙재회의 개설 장소를 의미한다는 견해, 둘째, 수륙제에서 추천할 대상[망령]이 해매고 있는 장소인 물과 물을 지칭한다는 인식, 셋째, 수륙은 성인과 범부를 뜻한다는 것, 넷째, 바라문 선인을 위해서는 가지한 음식을 물에 뿌리고, 지옥중생을 위해서는 땅에다 뿌리는 시식(施食)의 행법에서 유래한다는 것, 다섯째, 수륙은 육도 일체 중생의 의보(依報)로 육도중생의 의보에는 세 곳이 있는데 수(水)·육(陸)·공(空)이 그것⁷⁾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수륙제의 ‘수륙’을 다양하게 이해하여, 수륙제를 무속의 용왕굿으로⁸⁾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오해를 낳게 된 것은 위 둘째 견해처럼 ‘수륙’을 물가로 이해하고 물가에서 주로 개설하여 타자들로 하여금 그 같은 인식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륙제의 ‘수륙’이 추천할 대상이 해매고 있는 장소인 물과 물을 지칭한다는 것과 ‘물가[川邊]수륙제’의 의미는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와 인식이 존재하지만 수륙제는 조선시대 이후에는 가장 많이 실행된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의례가 되었다. 그간 수륙제 전승 현장의 실행을 중시한 나머지 수륙제의 재차(齋次)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았고,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간헐적으로 수륙제 실행관련 불화와 건축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근 의식의 재차를 제시하거나 세부 실행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⁹⁾ 수륙제의 각 재의식이 담고 있는 가치와 미학 등은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각 의례의 재차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백제수륙제¹⁰⁾의문¹¹⁾과 2015년의 실행¹²⁾을 중심으로,

행양상과 발전 방향」(삼화사, 2014) pp.10-12.

8) 韓萬榮, 『韓國佛教音樂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80/1984), pp.1-3.

9) 이영숙, 『조선 후기 폐불탱 연구』(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3); 鄭明熙, 『朝鮮時代 佛教儀式的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3); 홍지현, 『18세기 경북지역 사찰의 수륙제 실행과 공간 이용』(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0) ‘백제수륙제’라고 해서 백제시대 수륙제라고 할 수는 없다. 수륙제는 후대에 생성된 것으로 후대 부여지역 불교인들이 불교를 선행한 백제시대 임금을 추모하고 5천 결사대나, 삼천궁녀의 한을 풀기 위해 시작했다고 보인다. 또 현대 한국수륙제는 당해 사찰이나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스님들이 아닌 전문 법패를 익힌 소수의 스님들에 의해 자신들이 익힌 방식대로 실행되어 그 특성을 찾기 어렵다.

11) 부여백제수륙제의문편찬위원회, 『부여백제수륙제의문』(부여백제수륙제 보존위원회, 2015)

12) 2015년 10월 3일 충남 부여읍 정림사지와 백마강 변에서 개최된 수륙제를 지칭한다.

1) 이성운, 「현행수륙제의 몇 가지 문제」, 『정토학연구』 제18집 (한국정토학회, 2012) pp.169-170.

2) 이성운, 위 논문, p.170.; 연제영, 『수륙제 설단과 실행 양상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3) 이성운, 「영산제와 수륙제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제73집 (한국불교학회, 2015.2.)

4) 서울의 진관사와 삼화사는 2008년경부터 당해 사찰의 수륙제 실행과 관련하여 매년 수륙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5) 이성운, 「현행 수륙제의 몇 가지 문제」, 『정토학연구』 제18집 (한국정토학회, 2012.12.)

6)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제에 대한 검토」, 『한국선학』 제36호 (한국선학회, 2013.12.)

7) 이성운, 「삼화사 국행수륙제의 설단과 장엄」, 『삼화사 국행수륙제대의 설

제반 연구자의 논의를 참고하며, 전통수륙제의문에서 확인되는 수륙제의 차서를 집중 조명해보고(Ⅱ장), 백제수륙제 재차의 의미와 특성을 미학적 관점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Ⅲ장).

Ⅱ. 수륙제의 차서(次序)

수륙제가 실행되는 순서 또는 차례를 재차(齋次)라고 한다. 수륙제의 재차를 확인하는 길은 어렵지 않다. 수륙제 의문이나 목차 등을 일별하기만 하면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차서를 언급하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현재 실행되는 수륙제의 재차가 조금씩 선후를 달리하여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현재 한국불교에서 실행되는 주요 수륙제의 재차는 어떠하며, 전통수륙제의문의 재차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1. 현대수륙제의 차서

현재 수륙제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서울의 진관사,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 경남 마산의 백운사이다. 이 세 곳에서 실행되는 의례 차례와 기타 여러 지역에서 실행됐던 수륙제의 재차는 기본적으로 준비된 의문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각 수륙제의 의문과 조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살펴보자.

1) 삼화사 수륙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삼화사 국행수륙제는, 현재 지정된 세 곳 가운데 가장 먼저 실행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1395년 고려 왕 씨

의 추천과 제사를 위한 국행수륙제가 삼화사에서 시작되었지만 1413년 이후 국행수륙제와 관련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¹³⁾ 있으나 월지도안(月渚道安, 1638~1715)의 ‘삼화부천변수륙소’ 네 수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¹⁴⁾ 볼 때 삼화사와 그 일대에서 수륙제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 수륙제는 의문에 입각하여 설단과 장엄을 하고 실행을 하며, 각 수륙제는 의례 상황[齋費]에 따라 무엇으로 작법을 할 것인지 문의하여 실행된다¹⁵⁾고 해서 어떤 사찰의 수륙제는 어떤 특정 의문으로 하는 수륙제라고 고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⁶⁾ 하지만 삼화사 국행수륙제는 삼화사에 전해진 1607년 갑사본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약칭 『중례문』)를 기준으로 하여 실행되고 있다고 보이며, 2013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행된 수륙제 일정과 차서는 다음과 같다.¹⁷⁾

<표-1> 삼화사 수륙제 일정표

사전의식 : 행향사

첫째 날(10.18) : 법요식, 시련, 대령, 괘불이운, 조전점안, 쇄수결계, 사자단

둘째 날(10.19) : 오로단, 상단, 헌다례, 설법, 중단

셋째 날(10.20) : 방생, 하단, 금강경독송, 봉송회향

『중례문』에 의거하여 수륙제가 실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위 일정표 상에 보이는 의식 가운데 『중례문』에 존재하지 않는 의례가 많다는

13) 차장섭, 「삼화사 국행수륙제의 배경과 전개」, 『삼화사와 국행수륙제』 (삼화사·동해시, 2008) p.50.

14) 月渚道安, 「三和府川邊水陸疏」(HD.9) pp.105-106.

15) 『新刊刪補梵音集』(HR.2) p.591상.

16)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제의 성격과 관계 탐색」, p.433.

17) 延濟永(彌燈), 『한국 水陸齋의 儀禮와 실행양상』, p.116. 이하 실행일정 동일

것을 알 수 있다. 시련·대령뿐만 아니라 조전점안의식이 행해지고 있고 하단시식 이후에 금강경이 독송되고 있다.

2) 진관사 수륙제

“내가 국가를 맡게 됨은 오직 조종(朝宗)들께서 적경(積慶)하신 덕이니, 조상의 덕 보답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되겠고, 또 신민(臣民)이 혹은 나라 일로 죽었지만 혹은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 제사 맡을 사람이 없어 저승길에서 굶주리고 전도(顛倒)하되 구제할 수 없음을 생각하며,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그래서 옛 절에다가 수륙도량을 마련하고 해마다 재회(齋會)를 개설하여 조종(朝宗)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중생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 …… 1397년 9월 24일에 임금이 친림하여 보시고 ……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친히 부처로부터 기별[佛記]을 받아 묘한 인과를 증험하시도록 하고 제사 못 받는 귀신들에게도 모두 복리와 혜택을 보게 하였으니”¹⁸⁾라고 「진관사수륙사조성기」는 진관사 수륙제의 시초와 설행목적을 전해주고 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개설된 역사는 오래이며, 주로 선왕선후의 사후 칠칠재와 기신재로 수륙제가 설행되었다.¹⁹⁾ 그 영향에서인지 현재의 수륙제도 49일기도의 칠칠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마지막 재는 2일간 진행되고 있는데 2013 진관사 국행수륙대제 칠재 일정은 다음과 같다.²⁰⁾

<표-2> 진관사 수륙제 일정표

1부

낮재		2013. 10. 12. 토요일
10:00		낮재를 알림
10:30~12:00		시련, 대령, 관육
12:00~13:00		점심공양
13:00~15:00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
15:30		법문

2부

밤재		2013. 10. 13. 일요일
09:30		밤재를 알림
10:00~12:30		수륙연기, 사자단, 오로단
12:30~13:30		저녁공양
13:30~16:30		상단소청, 중단소청, 하단소청, 상단권공, 중단권공, 하단시식
16:30~18:00		봉송회향

진관사 수륙의문은 1571년 강진 무위사 본 『수륙무차평등제의촬요』(약칭 『結手文』)와 1723년 삼각산 중흥사 판본 『천지명양수륙제의범음산보집』이다.²¹⁾ 『결수문』이나 『중례문』, 『지반문』(『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의 약칭)은 수륙의문의 중요한 요점만을 편찬한 것이므로 원만하게 의례를 봉행하려면 의례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의례승려[어산]가 있거나 완성본이나 지침서와 같은 의례서가 필요하다. 17세기 들어 『작법절차』(1496)를 더욱 정교하게 정리했다고 보이는 『영산대회작법절차』(1613)나 『오종범음집』(1651)과 같은 지침서들이 편집된다.

진관사 수륙제 또한 지침서에 의거해 설행되고 있지만 그 기본 의문은 『결수문』이라고 보이는데, ‘낮재’와 ‘밤재’라고 지칭하며, 당일 밤

18) 권근, 『국역양촌집』 (민족문화추진회, 1978/1986), pp.251-253.

19) 태조 이후 연산군까지 진관사에는 32회 이상의 수륙제와 기신제 등이 개설되었다(嚴潤姬, 『朝鮮 前期 津寬寺 水陸齋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35.)

20) 延濟永(彌燈), 『한국 水陸齋의 儀禮와 설행양상』, p.117. 이하 설행일정 동일

21) 진관사수륙제보존회, 「1977년 진관사 수륙제의 성격과 진관사 국행수륙제 복원 계획」, 『진관사 국행수륙대제의 조명』 ((사)진관사수륙제보존회, 2010) p.72.

<표-3> 백운사 수륙제 일정표

에 지내야 할 재를 다음 날 행하고 있다. 이 차서는 2010년 설행자료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2010년 설행된 수륙제에 너는 상단과 중단의 권공을 『결수문』에 의하지 않고 현실대로 설행하였다고 보이며, 하위시식도 결수문의 상위와 중위편의 의식까지 포함하여 설행한 흔적이 보였는데, 제시된 차서만으로는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다.²²⁾

3) 백운사 수륙제

삼화사와 진관사가 국행 또는 왕실에 의해 개설된 수륙제를 갖고 있는 데 비해 경남 마산 백운사의 아랫녘수륙제는 전문 범패 스님에 의해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수륙제는 사찰의 마당[庭中]이나 야외에 설단으로 개설되게 되면서 갖가지 범패와 삼현육각으로 표현되는 음악과 작복춤, 바라춤 등의 무용과 삼단 삼위의 위목을 다는 번개(幡蓋)와 연(輦) 등과 같은 장식에서 볼 수 있는 미술적인 요소, 소문과 표백문에서 볼 수 있는 문학성이 존재하는 종합예술적인 종교의례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수륙제는 설행 비용이 다대(多大)하여 조정이나 왕실 또는 양반 귀족 대부호와 같은 계층이 아니면 설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규모의 재는 역시 재력(財力)이 풍부한 서울이라야 할 수 있기 때문’²³⁾이라는 사실과 상통한다.

범패전승 스님들이 주관하고 있는 아랫녘수륙제는 국행이라고 하는 삼화사와 진관사의 수륙제와 대비되며, 다분히 민중적이고 참여불교적인 모습의 한 양태로 나타난다. 백운사의 아랫녘수륙제도 삼화사의 수륙제와 같이 3일간 설행되고 있으며, 2013년 10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 설행된 수륙제 일정은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날(10월 10일) 오전 9시 30분
외(外)대령 시련절차
쇄수 결계의식
삼신이운
복청계
신중작법(신중대례청)
각단권공, 도축원(都祝願)
영반
점심공양
재시용상방
관육
영산작법(운수상단 건회소 할향)
설회인유 - 엄정팔방 - 개계 - 관음청 - 복청계 - 발보리심편 - 소청오로단
하단 입령 및 전경(아미타경)
둘째 날(10월 11일) 오전 9시 30분
송주(천수경)
소청성위편(봉영부욕)
소청중위편(삼지장단 봉영부욕)
각단권공
상축
점심공양
법사이운 - 거량 - 범문
화청(회심곡)
하단 입령 및 전경(아미타경)
셋째 날(10월 12일) 오전 9시 30분
송주(천수경)
삼화상 증명청
조전점안 및 조전이운
마구단 권공

백운사 수륙제 의문도 『결수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 설행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여타의 수륙제 차서와

22) 이성운, 「현행 수륙제의 몇 가지 문제」, pp.177-178.

23) 韓萬榮, 『韓國佛教音樂研究』, p.158.

24) 延濟永(彌燈), 『한국 水陸齋의 儀禮와 설행양상』, p.118. 이하 설행일정 동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먼저 의례 구조상 특징은 패불[삼신]이운 이후 설법의식이 둘째 날 중위소청을 행하고 있다는 점과 거량의 법문과 송경의식이 하단 입령 및 전경(轉經)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마지막 삼일째 되는 날 조건점안을 하거나 마구단 권공을 하고 있는 점은 화재수용편의 전용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재차의 선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산견된다.

4) 기타 수록재

기타 한국불교 수록재 현황 자료로는 『수록재현황조사보고서』와²⁵⁾ 1969~71년간에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에서 민속자료조사 차원에서 실시한 『불교의식』의 수록재 항목이 있는데, 이곳의 의문은 수록무차평등재의 설명에 불과하므로 실행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26),27)} 수록재의식은 삼단시식, 삼단의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록재현황조사보고서』의 신중작법, 도량엄정, 신중의식, 3지장거불과 공양, 하단의식, 봉송의식 등으로 거행된 여수 진남제 수록재도 수록재라고 할 수 있다. 또 법성포 단오수록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재의 보편적인 수록재 차서로 실행되었다.²⁸⁾

<표-4> 법성포 단오수록재 실행²⁹⁾

- ① 시련의식
- ② 대령의식
- ③ 관육의식

25)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 『수록재실태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10)

26) 『佛敎儀式』 (文化財研究所 藝能民俗研究), 1989)

27) 이성운, 「현행 수록재의 몇 가지 문제」, pp.172-173.

28)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 『수록재실태조사보고서』, pp.47-54.

29) 이성운, 「현행 수록재의 몇 가지 문제」, pp.175-176. 도표의 밑줄 부분은 상위공양의식용이 하위시식에서 행해지고 있다.

- ④ 패불이운의식 옹호계-나무영산회상불보살 등상계-영산지심 현좌계 다계 건회소;
- ⑤ 영산의식 할향-합장계-주향공양편;
- ⑥ 사자단의식;
- ⑦ 오로단의식;
- ⑧ 상단의식 『결수문』의 상단 3위 소청과 공양 축원;
- ⑨ 중단의식 『결수문』의 중단 6위 소청과 공양 축원;
- ⑩ 하단의식 거불 소청하위소 진령계-보소청진언 유치 고청도청-인예향육편 - 지조육편-출육참성편-나무대성인로왕보살-가지예성편-법성계 수위안 좌편 -[가지변공편 변식진언 출생공양진언 현향진언 현등진언 현화진언 현과진언 현수진언 현병진언 현식진언 운십공양진언] 선양성호편 실시인 연편 12인연진언 선밀가지편-주식현공편-고훈수향편-참제업장편 참회계 참회진언 발사홍서원편-사사귀정편-왕생정토주 석상호지편 지계진언 수행육도편 관행계찬편 원만회향소 회향계찬편;
- ⑪ 봉송의식 삼단도배송편 보례계 행보계-나무영산회상불보살 법성계 화재수용편-소진진언 봉송육도편 봉송진언 상품상생진언 보신회향편 보회향진언 파산계 삼회향 회향계.

현재 유통되는 수록재문으로는 『석문의범』 소개 의문이 있지만 진남제수록재는 신중권공과 하단시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이고, 법성포 단오 수록재는 현행 시련 대령 관육이라는 틀에 영산의식과 『결수문』 의식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³⁰⁾ 특히 전통수륙의문에서 볼 수 없는 신중작법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은 독특하다. 창불(唱佛)이라고도 하는 신중작법은 104위 신중과 39위 신중 창불로 나뉘지는데 39위의 신중은 화엄신중이므로, 수록도량신중이라고 할 수 있는 104위 신중 또는 104위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 소창불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석문의범』의 신중청에는 수록재의 결계와 옹호를 청원하기 위해 그 진언이 서두에 편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³¹⁾

30) 이성운, 「현행 수록재의 몇 가지 문제」, p.176.

31) 이성운, 「한국불교 생전에수록재의 특성」, 『정토학연구』 제23호 (한국정토

2. 전통의례문의 차서

수륙재의 원형 의문으로는 중국불교의 남 수륙 계통인 송 지반(志磐)의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6권)와 북 수륙 계통인 양약(楊諤)의 『천지명양수륙의문(天地冥陽水陸儀文)』(3권)³²⁾이 있다. 그런데 고려(高麗) 일연의 제자 혼구(混丘, 1251-1322)가 <신편수륙의문> 2권을 새로 편찬한 것은, 중국의 원형 수륙의문으로 수륙재를 실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륙재 의문의 형성에 대해서는 필자의 선행 논문과³³⁾ 여타 논문 등³⁴⁾에서 다루었다.³⁵⁾

한국불교 전통수륙재의 차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문에는 의례 실행의 순서대로 요점 위주로 편찬된 대·중·소형의 『지반문』·『중례문』·『결수문』의 원형적인 의문과³⁶⁾ 수륙재에 청해지는 각각의 성현을 청하는 형태로 편집된 『자기문』 또는 원형의문의 지침서 격인 『천지명양범음산보집』의 두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단과 절차 준비 등을 위한 지침서로는 ‘수륙잡문(『排備文』)’과 『자기문절차조례』 등이 있다. 두 유형의 대략적인 차서는 다음과 같다.

1) 원형적인 차서

앞 절에서 현재 한국불교 전반에서 실행되는 수륙재의 재차를 살펴보면 대개 시련 대령 관욕 쾌불이운 영산작법 수륙본편의 순

서로 실행된다. 수륙본편을 보면 『결수문』과 『중례문』은 설회인유편으로 시작하고, 『지반문』은 엄정팔방 이전에 삼보님께 예경하고 예적 원만성자 등 신중을 청하여 결계하고 호지하여 달라고 청한 다음에 사직사자를 청하고 있다.

<표-5> 원형 의문의 차서 요약

-
- 도량결계와 엄정
 - 사자를 청해 수륙재회가 개설되었음을 알림
 - 오방의 오제를 청해 오방의 길을 열기를 청함
 - 상위(불법승 삼보)를 청해 공양을 올림
 - 중위(호법신중)를 청해 공양을 올림
 - 하위의 존재를 청해 음식과 범시를 베풀
 - 삼위의 존재를 둘러보냄
-

이때 대소의 의례에 따라 목욕의식을 하는가, 공양물을 올리는 때가 언제인가, 청할 때는 함께 청할 것인가 따로 청할 것인가, 둘러보낼 때도 함께 보내드릴 것인가 따로 보내드릴 것인가 하는 등의 차이가 일어난다.

첫째, 목욕의식의 존재여부를 놓고 보면 대례의 형태인 『지반문』과 『중례문』의 의식에서는 상위와 중위의 존재를 청해 목욕의식을 봉행한다. 그렇지만 『결수문』 의식에서는 하위의 존재들에게만 목욕의식을 봉행한다.

둘째, 공양을 올리는 예를 보면, 『지반문』에서는 상위의 존재를 청해 목욕의식이 끝나고 자리에 앉으시고 나면 곧바로 공양을 올린다. 그렇지만 『중례문』이나 『결수문』의 경우는 소청을 한 다음 자리를 바치고 삼보와 삼존께 예경한 다음 차를 올리고, 다음의 중위나 하위의 존재를 청하는 의식을 행한다.

셋째, 변식의 4다라니 등 염송의 차이가 적지 않다. 『지반문』의 상

학회, 2015.6), pp.24-25.

32)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한국의 수륙재』 (대한불교조계종, 2010) p.14.

33)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pp.263-268.

34)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연구』 10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1) pp.20-21.

35)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p.430.

36) 이성운, 위 논문, pp.431-438.

위에서는 변식진언과 감로수진언만을 21편 염송하고, 중위나 하위에 서만 사다라니를 7편을 염송한다. 『결수문』은 상위와 중위에서는 정법계진언·변식진언·출생공양진언을 21편 염송하고, 하위에서만 4다라니를 7편 염송한다. 그러나 『중례문』은 현재와 같이 상·중·하위에 동일하게 현재의 4다라니를 염송하는 것을 제시되고 있다.³⁷⁾

2) 융합적인 차서

국내 수륙의문의 명칭 끝에 ‘촬요’ ‘찬요’라는 표현이 붙어 있듯이 수륙재의 요점만을 간추려 뽑아 정리하고 있으므로 실제 설행 때는 의문이나 작법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므로 완전한 원형에 근접한 의문이 무엇인가는 현재로서는 잘 알기 어렵다고 보인다. 『지반문』의 경우 지반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와 전 반부는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중례문』이나 『결수문』은 설회인유편부터 시작하다 보니 번재삼보에 대한 예경이 빠져 있어 순수한 수륙재에 관한 요점만을 간추려 설행하게 되면서 실제 의례 현장의 스님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래서 (영산)작법절차와 수륙재 대·중·소 세 의문의 설행을 돕는 지침서가 간행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장 이른 지침서로는 『영산대회작법절차』(1613/1634), 『오종범음집』(1661), 『신간범음산보집』(보현사, 1713),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1709/1723, 약칭 『천지명양범음산보집』)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수륙재 지침서에서 보이는 차서를 융합적인 차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지침서들에 편집된 순서는 수륙재의 차서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인식을 알려준다.

<표-6> 수륙재 주요 지침서의 목차

영산대회 작법절차	오종범음집	천지명양범음산보집	신간범음산보집
작법절차 (할항~설법) 분수작법 소례결수작법 중례문작법절차 지반문작법절차 성도재작법절차	영산작법 중례작법 결수작법 예수문조전원 장법 지반12단 3주야구식	대령의 분수작법 이운의문 괘불 등 설재의 등 절차 좌식 영산작법절차 재후작법절차 [중례작법] 엄정팔방 후 수륙연기 결수작법 운수단작법 대례왕공 지반3주야절차	보청의식 회주증명사인영의 습례의 분수예식 범사이운의 영산단법 중례단법 지반단법 결수단법 예수단법 풍백우사단법

위 지침서들의 목차를 일별해 보면 하나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것은 재전의 영산작법은 동일하나 재후(점심공양이후)의 수륙작법으로 제시된 의문의 순서에서 『중례문』을 선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간 수륙재 의문 가운데 명칭 등의 독창성이나 20세기 초반 전범으로 수용된 『석문의범』에 수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결수문』을 한국불교 수륙의문의 정통의문으로 이해하였지만³⁸⁾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불교 수륙의문의 정통의문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점심공양)전에 영산작법을 마치고 재후에 작법 준비를 마치고는 범음을 아는 이가 회주 앞으로 나아가 작법예문을 여쭙고³⁹⁾ 그 지시에

37) 필자는 수륙재의문을 요점 위주 의문과 영산 합편의문으로 구분한다.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p.278. <표1>로 정리하였다.

38)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pp.267-268. 2013.8.14. 봉은사에서 개최된 <수륙재의 향연 학술세미나>에서 서울시 경제유산전승자 동주 원명 스님 역시 범패전승자 송암 스님으로부터 『중례문』으로 수륙재를 전승받았다고 증언하며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 의례를 선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례문』·『결수문』·『지반문』·『공양문』(영산작법은 ‘공양문’으로 표제됨) 『운수단』 등 수륙의 의문을 어산 승려의 탁자 앞에 비치해 놓고⁴⁰⁾ 있다고 하겠다.

수륙제 지침서들의 목차 등에 의거해 보면 수륙제의 융합적인 차서는 원형 의문의 차서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대령과 영산작법 등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지침서들에 우선적으로 편제된 『중례문』의 권공도 원형의문의 그것과 같은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분수작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그간 ‘예불’로 간단히 이해하지만, <분수작법>은 입장을 참회하고 선근을 늘리는 조석의 정진법식이다.⁴¹⁾ <분수(焚修)작법>에서 삼보예경을 한다고 하여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작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정진 불사를 하더라도 삼귀의 등 예불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⁴²⁾ 해서 수륙제 때는 고훈과 동참재자의 그것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령과 분수작법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는 각 사찰에서 간행된 ‘제반문’이 있다. 『금산사제반문』(1694)의 <영혼식>이 그것이다. 영혼식은 문 밖에서 영혼을 맞이하여 보례를 하고 안좌를 한 다음 <영산작법절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수작법>을 하고 있다.⁴³⁾ 대령, 영산(설법과 송경), 분수작법, 별축상작법의 순서는

대령 관육의 차서를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이해하는 데도 의미 있다고 보인다. 경전을 염송하는 법식에 영혼을 미리 안좌하는 대령의 등장, 그리고 경전염송 법식의 영산작법으로 정형화되었다. 또 대령한 영혼을 위한 관육이 등장하였다. 17세기 후반이 되면 현재와 같은 수륙제의 사전의식이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 수륙제 의문 가운데 『자기문』(자기산보문)은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⁴⁴⁾ 수륙제 선행에 등장하는 신중과 불보살님을 구체적으로 각각 청하여 공양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제반문』이나 <영산작법>에서 소청 3편 이후 곧바로 물뿌리는[쇄수] 의식을 하고 있다. 『자기문』은 각단 소청(召請)식으로 진행되는 데, 이는 한국불교 의례성립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불전의 당우 건축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⁴⁵⁾

III. 재차(齋次)의 미학

수륙제의 재차(齋次)는 신앙하는 불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믿고 그 분들의 그것들을 찬탄하며 그 위력에 의지하여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상구보리의 장이고,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이들에게 인연을 맺어주는 하화중생의 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39) 智還編,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HD.11) p.469, 하; 知梵音 趨進會主前 拜伏云 “作法何以爲之” 會主如有可命之事命之無則云 “依例爲之” 梵音 唯唯而退. 『新刊刪補梵音集』(HR. 2) p.581.

40) 鄭明熙, 『朝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p.264, [도14].

41) 이성운, 「한국불교 일상의례의 명칭 문제」, 『보조사상』 제38집 (보조사상연구원, 2012.8) p.110.

42) 이성운, 위 논문, pp.111-112.

43) 『金山寺諸般文』(HR 2) pp.475-487.

44) 鄭明熙, 『朝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3) p.30.

45) 『자기문』이 경북지역의 사찰 수륙제 선행과 공간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다(홍지현, 『18세기 경북지역 사찰의 수륙제 선행과 공간 이용』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아름다움으로 충만해 있다. 의례에는 헌신이 있고, 조화와 합리의 질서가 있다. 4성 6범의 성인과 범부들이 함께하는 깨달음과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공양물을 베풀고 나누는 수륙재는 범시[진리 나눔]와 재시[財施]의 대향연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미학으로 완성될 때 수륙재는 비로소 그 실행목적이 성취된다. 다만 불광사에서 수륙법회를 만연(萬緣)법회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관통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부여백제수륙재는 어떻게 원만히 융통되고 있으며,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는가. 부여백제수륙재의 실행약사를 살펴보고 의문(儀文)과 그 실행(設行)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실행의 원융(圓融)

부여지역에는 60여 년 전부터 백마강 일대에서 현대적인 수륙재가 봉행되었다. 부여지역에 있는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원찰이며 전통사찰인 무량사에서 1498년 수륙재 의문인 「결수문」과 「지반문」이 간행되었고, 1528년에는 「중례문」이 간행되었으며,⁴⁶⁾ 또 한국패불탱 조성의 역사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27년에 부여 무량사에 패불탱이 조성된⁴⁷⁾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일찍부터 이 지역에서 영산·수륙재의 실행이 성행했다는 증거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백마강 강가에서 현대적인 개념의 해원(解冤)의 수륙재가 처음 실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평양의 천변수륙재와 같이 오래 전부터 실행되어 왔었다고 보인다. 부여지역에는 1960년대 초반부터 무량사에서 범음강습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여타 지역의 그것보다 10여년 이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60여년을 이어온 부여의 백제수륙재는 ‘시간의 부피는 있지만, 세부적인 의례 절차나 실행 주체,⁴⁹⁾ 어산 스님들에 대한 정보’⁵⁰⁾와 수륙재의 실행 목적 등 필수적인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 연유는, 첫째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 수륙재가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각지의 전문 어산 스님들에 의해 실행되어 의문이나 실행 내용이 이 지역에 잘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야외 설단으로 진행되는 수륙재는 의례 상황에 따라 견기이작(見機而作)하므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1) 실행 목적의 측면

부여백제수륙재는 그 시작의 연원이 양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별도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지만 국행의례 또는 왕실의례로서 원찰이나 거찰을 중심으로 실행된 과거의 그것과 60여 년 전 자연스럽게 부여백제의 삼천궁녀와 3충신을 위한 제향으로 준비된 것이 그것이라고 하겠다.⁵¹⁾ 1955년 백제대제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자연스럽게’ 수륙재를 실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지역 특성상 백제의 고도로 이곳을 다스렸던 임금이나 (설령 그

48) 통범소리로 유명한 부산지역의 범패교육의 경우, 1971년 부산 관음사에서 제1회 어산의식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으며(김용환·윤소희 편, 『신라의 소리 영남범패』(정우서적, 2010) p.111.), 전북 봉서사 범패의 전승교육도 1976년에 제2회 수련법회를 개최하고 있다(일용어산작법보존회·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영산에 꽃피다-어장 일용, 그 삶과 여정』(정우서적, 2013) p.211.).

49) 2015년 부여백제수륙재의 실행주체는 부여불교사암연합회 부여백제수륙재보존회이지만 이전의 부여백제수륙재의 실행주체는 명확하게 정리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50) 홍태한, 「지역 주민과 함께 한 60년 역사의 백제문화제 수륙재」, 『백제문화제 수륙재 60년의 가치』(부여군불교사암연합회·부여불교통합신도회, 2014) pp.86-87.

51) 홍태한, 「지역 주민과 함께 한 60년 역사의 백제문화제 수륙재」, 『백제문화제 수륙재 60년의 가치』(부여군불교사암연합회·부여불교통합신도회, 2014) p.88.

46)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4) p.198.

47) 이영숙, 『조선후기 패불탱 연구』(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3) p.13.

것이 전설에 불과할지라도) 애환이 서린 삼천궁녀와 3층신 이야기는 자비심 가득한 이곳 불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인다. 일찍이 평양천변에서 동명성왕 등의 고구려의 임금들을 위해 수륙재를 개설하여 제향을 올린 사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3월 3일은 천기가 새로워 시냇가에서 수륙재를 베풀 만합니다. 사성(四姓)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잊어버렸지마는 시방의 그윽한 감응은 곧 나타날 것입니다. 생각하면 우리 서방의 한 나라는 일찍이 동명왕으로부터 천 년의 흥망이 계속해 왔거늘 어찌 백전(百戰)의 원한이 없었겠습니까. 천지는 망망한데 오랫동안 사시(四時)의 제향(祭饗)이 끊기었습니다. …… 화기(和氣)는 흩어지고 여기(厲氣)가 모여 재난이 거듭하여 죽는 자는 많고 사는 자는 적어 남은 백성들은 고단하고 외롭습니다. …… 몇몇 단월의 마디마디 정성스런 마음이오니 모든 부처님의 밝으신 지혜는 자세히 비추어 주소서. 엎드려 원하옵니다. 우리 왕국의 복의 바다는 길이 흐르면서 패강을 삼켜 마르지 않으며, 이 생민(生民)의 수(壽)의 산은 높이 솟아 보산을 올려 더욱 높으며, 몇 백 대의 전쟁에 죽은 외로운 혼과 사경(四境)에 두루 한 번뇌에 막힌 닢과 악독(嶽瀆)과 강하의 주장과 묘가와 풍우의 신과 89종의 요사한 이와 15류의 나쁜 죽음과 무변의 중생과 법계의 함령들로서, 끝이 있는 생을 모두 하직하고는 다시는 요괴가 되지 말고, 무위의 다스림을 함께 즐기면서 영원히 복과 상서를 이루게 하소서.⁵²⁾

평양 천변에서 수륙재를 개설했던 17~8세기 초의 불교인들과 20세기 중반의 부여불교인들의 개설 연유는 그리 달랐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자연스럽게’ 수륙재를 개설하자는 의견이 모여진 것은 수륙재의 목적과 기능을 잘 알고 있었고, 일제와 육이오전쟁을 겪으면서

실행되지 못했던 불교의례를 복원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지역의 불교인들이 동명왕으로부터 시작된 고구려 왕실의 제향과 일반 백성(生民)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며 수륙재를 개설하였듯이 부여지역의 불교인들도 한마음으로 강가[천변]에서 수륙재를 개설하여 백제의 선왕선후와 삼천궁녀·충의장졸에 제향하고 나라와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국가제향의 축제로서 수륙재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부여지역의 불교인들이 특정 사찰 단위가 아닌 여럿이 모인 연합체에서 한마음으로 수륙재를 실행하므로 실행 목적의 원용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의문과 실행의 측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부여지역은 수륙재 실행의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또 한국불교의 수륙재는 의례의 상황에 따라 의문을 선택하여 1주야·3주야·7주야로 실행되었지만 현실은 그같이 실행하기 어렵다. 부여지역의 수륙재 또한 하루를 넘기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륙의문 가운데 소례인 『결수문』을 바탕으로 해 부여지역의 조계종 본사인 마곡사에도 소장된 『천지명양수륙범음산보집』와 같은 지침서대로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여백제수륙재의 의문은 『결수문』을 저본으로, 『천지명양수륙범음산보집』의 지침과, 백제왕의 제향을 겸하므로 『자기문』의 절차를 참고하고, 백제문화제의 한 의식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문 등은 부여백제수륙재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문으로 편집되었다고 보인다. 또 <영산작법>을 하면서 영산작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 염송이 이뤄지지 않는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법화경약찬게’를 편찬하여 염송하거나 보문품 독송을 실행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108인의 소임으로 실행되던 과거의 수륙재와⁵³⁾ 같은 품격으로 격

52) 月渚道安, 석성우 김규대 역, 『平壤川邊水陸疏』, 『영가천혼범어집』 (토방, 1994) pp.215-216.

상해 수륙재를 설행하기는 어렵지만 병법(乘法)에 의해 아뢰어지는 각 단의 소문을 부여백제수륙재 보존회 회원 스님들이 각각 분담하여 아뢰고, 전문적인 어산 스님들에 의해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백제수륙재보존회에 참여하고 있는 스님들이 소문의 표백 등 일정부분 의식을 분담하고 있는 것은 참여의 원용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평등과 차이(差異)

수륙재는 무차평등재회(無遮平等齋會)라고 한다. 이때 무차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는 이를 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엇에 그러하다는 것인가. 재회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재회는 음식을 나누는 모임이다. 재의 원래 의미는 먹지 않으며 몸을 가지런히 하고 경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재를 베푸는 이와 받는 이의 마음가짐이다.

무차평등재회의 수륙재에는 4성과 6범이 함께 초청된다. 노소동락이라는 세속의 즐거움과 달리 성범동회(聖凡同會)이다. 성인과 범부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눈다. 이 성범동회에 초청되는 대상은 원친(冤親)과 귀천(貴賤)이 구별되지 않으며 특정인을 한정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조상[특정인]만을 제사하는 유가의 제사와 좀 다르다고 하겠다.⁵⁴⁾ 이처럼 성범동회의 수륙재회는 평등하지만 차이 또한 분명하다. 그것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재회 본질의 평등

재자[선왕선후 및 일체 고히 영가]를 시련하여 대령하고 관욕을 한

다음 자리에 안좌하고 괘불과 불패를 이운해 단에 모신다. 그리고 <영산작법>으로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하고, 최상승법인 법화경을 염송함으로써 명계와 양계의 일체 육도 중생을 제도한다.

신중을 널리 청하여 불사를 옹호하고 성취하여 줄 것을 청한다. 그리고 운수작법을 하고 수륙의 연기를 밝히고, 사자를 청해 법회를 알리고, 오방의 오제를 청해 일체 고히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상위의 존재를 청하고 중위의 존재를 청한다. 끝으로 하위의 일체 법계 고히를 청해 목욕을 하게 한 다음 성현께 인사를 올리고 삼보를 알려주고 속세의 업을 닦아준다.

이어 상단에 공양을 올리고 중단에 공양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10말로 변하는 음식을 베풀게 되는데 하단의 존재들에게는 재시를 곧바로 베풀지 못한다. 해서 먼저 고히 속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5[또는 7]여래의 위력에 의지해 육도의 중생들을 정화해야 한다. 5여래의 명호를 칭명함으로써 그 위력에 의지하여 범부[지옥 아귀 축생]의 몸은 아름다운 몸이 되고 좁은 목구멍은 넓혀진 다음에야[無畏施] 하단의 배고픈 존재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다.[財施] 그리고 이들에게 일체 존재의 실상을 들려준다.[法施] 일체 존재의 실상을 들려주는 것은 일체 존재의 실상이 무상(無常)·무아(無我)·개고(皆苦)함을 모르고 현실에 집착하고 탐하고 욕심을 부리므로 육도의 고히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수륙재회는 평등(平等)과 무차(無遮)를 본령(本領)으로 하여 설행된다. 부여백제수륙재는 설행 연유를 보면 백제의 임금과 고히를 함께 청해 공양을 베풀므로 이 정신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등재회 속에 나타나는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

2) 설단 변식 등의 차이

53) 智禪編, 『五種梵音集』(HD 12) pp.162-163.

54) 鄭明熙, 『朝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p.152, 재인용.

① 수륙재의 단은 수륙재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 함께 차리는가, 한꺼번에 차리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설판재자의 재력이다. 전통의 수륙의문을 일별해 보면 『오종범음집』의 12단, 17단, 25단, 35단⁵⁵⁾ 등 다양한 설단 용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오종범음집』의 설단 예는 다음과 같다.⁵⁶⁾

	북(北)	
서(西)	상단(上壇)	동(東)
제산단(諸山壇)	중정(中庭)	중단(中壇)
풍백단(風伯壇)		당산단(當山壇)
가람단(伽藍壇)		성황단(城隍壇)
사자단(使者壇)		오로단(五路壇)
가친단(家親壇)		종실위(宗室位)
	남(南)	
	하단(下壇)	

12단 설단의 북편은 대웅전이고 하단이 존재하는 곳은 중문 밖 또는 누각이다. 또 좌우의 선당이나 승당 앞에 10단이 차려진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중정구조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중정(中庭) 구조의 용도가 조선 후기 이래의 대표적인 의례인 수륙재 설행을 위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⁵⁷⁾

하지만 현재 이와 같은 설단을 만나보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수륙재는 7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2단의 설단으로 놓고 볼 때 상단과 하단을 제외하고 중단, 오로단, 사자단 내지 용왕단, 고사단, 마구단 등과 서너 곳의 의식 장소인 시련 및 대령소와 관육소, 소대 등이

차려질 뿐이다.

설판재비의 차이에 따라 설단이 되겠지만 또 하나의 차이는 동참자들의 자리이다. 전통의 설단에는 동참재자 또는 참관자의 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중정에서 소수 재자와 의례 스님들에 의해 의례가 실행된다고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동참자와 참관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며, 소청되는 여러 성중을 위한 설단은 축소되어가는 경향이다.

부여백제수륙재의 설단은 백제문화제의 무대에서 이뤄지므로 사방의 설단은 어렵고 상단의 좌우에 중단·사자단·오로단·영단이 설단 되었다. 그런데 전통수륙의문에 따라 좌우 단의 거불을 달리하여 논리와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동쪽 단의 거불은 ‘나모불타야 나모달마야 나모승가야’로 서쪽 단의 거불은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범 나무시방승’으로 변별하라는 『오종범음집』의 지시를⁵⁸⁾ 응용하여 복원하였다고 보이는데, 동변은 중단과 오로단, 서변은 사자단과 국혼·승혼·고혼위패를 모시는 단을 마련하였다.

② 앞 장에서 살펴본 전통의례문의 원형 의문의 차서에서 언급하였듯이 수륙재 원형의문 간에는 변식(變食)과 헌공(獻供)의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행되는 많은 수륙재에서 『결수문』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중례문』의 그것이나 현행 한국불교의 사다라니를 일률적으로 3편 하는 것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부여백제수륙재의 경우는 저본으로 삼고 있는 『결수문』의 원문의 변공법을 채택하였다. 상위와 중위의 변공의식은 ‘가지변공(加持變供)’이라고 하여 정법계진언과 변식진언·출생공양진언은 21편을 염송하여 변식하고 현향진언·현등진언·현화진언·현과진언·현수진언·현병진언·현식진언 3편과 운심공양진언 염송으로 헌공하는 것이다.

중위의 변공(變供)도 상위 가지변공의 진언은 같으나 각 진언의 이철[14]편과 3편은 같고, 운심공양진언의 소례만 달리 표현되고 있다.

55) 『梵音刪補集』(HR 3) p.163.

56) 『五種梵音集』(HD 12) p.168, 하.

57) 홍선, 「한국산지가람의 형성과 전개 2」, 『한국의 전통산사』 별쇄본 (한국 의 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2015) pp.18-29.

58) 『오종범음집』(HD 12) p.168, 하.

부여백제수륙재의문에서는 21편, 14편 염송을 지시하고 있는 진언 염송은 현실을 감안하여 3편 염송을 택하고 있다.

하위의 변공은 그 이름조차 ‘주식현공(呪食現功)’으로 음식에 공이 드러나기를 비는 의식이다. 가지변공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음식에 공이 드러나도록 빈다는 것은 구체적이며 음식을 받는 대상이 범부임을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변식진언·시감로수진언·수륙관진언·유해진언을 각 7편 염송하고 있는데 현실은 염송 편수만 3편하고 있으며, 시귀식진언과 시무차법식진언으로 시식하고 있다.

평등하지만 존재들의 상황에 따라 달리 시설된 변식공양을 『결수문』의 원 의문에 입각하여 차이를 따라 시설하고 있는 점은 부여백제수륙의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또 하나 백제수륙재는 동참재자와 참관자들을 변별하기 위해 흰색의 수륙의를 착용하여 재가불자들의 재계의식을 고양하고 있고, 설행보조요원들은 청색의 옷을 착용함으로써 청의동자의 옛 신화적 의미를 복원하고 있음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여백제수륙재는 설행과 의문의 원용이 추구되고 있으며, 재회 본질의 평등이 그 이면에 도도하게 흐르는 한편 설단과 성범(聖凡)의 차이를 오롯이 표현함으로써 획일주의로 흐르고 있는 현 한국불교 일반에서 진행되는 수륙재와 변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어(結語)

이 글은 2015년 부여백제수륙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여지

역 수륙재의 실행 목적과 의미, 수륙재의 차서[II장]와 그 재차의 미학[III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륙재의 차서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현대 수륙재의 차서를 확인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삼화사·진관사·백운사 등지에서 개설된 수륙재의 차서를 일별한 결과, 원형 수륙의문에 영산작법이 선행되는 융합된 수륙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중례문』과 『결수문』을 저본으로 하고 있지만 시련 대령 관육 영산작법 수륙본편의 의식이 2~3일 간의 실행에 적합하도록 편찬된 차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통의례의 원형 의문은, 도량결계와 엄정을 하고 상중하위의 존재를 청해 관육하고 공양하고 시식하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차서를 가지고 있지만 의례의 대소 상황에 따라 상위와 중위에는 목욕의식을 삭제하거나 공양의 경우도 상중하위를 소청한 다음에 베풀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통의례의 수륙재 또한 경전 염송의 법석이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산작법이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령과 분수작법 등이 추가돼 정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륙재의 첫 의식이 된 시련의식은, 이운의식의 하나로 나타나는데 현대의 일반적인 인식과 같은 형태로 실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여백제수륙재의 특성으로는, 17세기 평양천변수륙재를 개설한 목적과 장소, 설행주체 등에서 유사하며 그곳에 담긴 원용의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의문과 설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역에 전해지는 전통 『결수문』을 바탕으로 하고 『천지명양범음산보집』의 편제를 수용한 것이나, 외지의 어산 승려와 보존회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는 측면 등에서 원용을 구현하고 있다.

실제 채택한 의문의 분명한 내용을 수용하여 평등의 무차를 실현

하면서도 변식 등의 의식에서 상하의 차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일반화되고 획일화되어가는 여타의 수륙제와 다른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 동참 대중과 진행자의 착복에서 그 차이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수륙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수륙제 실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여백제수륙제가 현대적으로 설행된 역사도 이제 육갑을 넘어가고 있다. 이제 부여백제수륙제는 실행의 원용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에 적합한 의문의 재편찬하여 그 의미에 적합한 의례로 재현함으로써 수륙제의 실행과 재회의 평등, 차이의 미학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 HR,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삼성암, 1994.
 HD, 『韓國佛教全書』, 동국대학교출판부, 1993.
 『天地冥陽水陸雜文』, 『排備文』, HR 1
 『仔夔刪補文』, 『仔夔文』, HR 2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志磐文』, HR 1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中禮文』, HR 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結手文』, HR 2
 『作法節次』, HR 1
 『靈山大會作法節次』, HR 2
 『五種梵音集』, HD 12
 『新刊刪補梵音集』, HR 2
 『天地冥陽水陸齋儀 梵音刪補集』, HD 11
 『金山寺諸般文』, HR 2
 月渚道安, 삼화부천변수륙소, HD 9
 권근, 『국역양촌집』, 민족문화추진회, 1978, 1986.
 月渚道安, 석성우 김규대 역, 平壤川邊水陸疏, 『영가천혼범어집』, 토방, 1994.
 김용환·윤소희 편, 『신라의 소리 영남범패』, 정우서적, 2010.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 『수륙제실행태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1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한국의 수륙제』, 대한불교조계종, 2010.
 文化財研究所 藝能民俗研究室, 『佛教儀式』, 1989.
 韓萬榮, 『韓國佛教音樂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1984.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제 연구」, 『선문화연구』 10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1.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4.
 嚴潤姬, 『朝鮮 前期 津寬寺 水陸齋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延濟永(彌燈), 『한국 水陸齋의 儀禮와 실행양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영숙, 『조선 후기 패불탱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3.
- 일웅어산작법보존회·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영산에 꽃피다-어장 일웅, 그 삶과 여정』, 정우서적, 2013.
- 鄭明熙, 『朝鮮時代 佛敎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畵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3.
- 진관사수륙재보존회, 「1977년 진관사 수륙재의 성격과 진관사 국행수륙재 복원 계획」, 『진관사 국행수륙대재의 조명』, (사)진관사수륙재보존회, 2010.
- 이성운, 「한국불교 일상의례의 명칭 문제」, 『보조사상』 제38집, 보조사상연구원, 2012.
- 이성운, 「현행수륙재의 몇 가지 문제」, 『정토학연구』 제18집, 한국정토학회, 2012.
-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한국선학』 제36호, 한국선학회, 2013.
- 이성운,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설단과 장엄」,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설행양상과 발전 방향』, 삼화사, 2014.
- 이성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제73집, 한국불교학회, 2015.
- 이성운, 「한국불교 생전예수제의 특성」, 『정토학연구』 제23집, 한국정토학회, 2015.
- 차장섭,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배경과 전개」,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재』, 삼화사·동해시, 2008.
- 홍지현, 『18세기 경북지역 사찰의 수륙재 실행과 공간 이용』,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홍태한, 「지역 주민과 함께 한 60년 역사의 백제문화제 수륙재」, 『백제문화제 수륙재 60년의 가치』, 부여군불교사암연합회·부여불교통합신도회, 2014.
- 홍 선, 「한국산지가람의 형성과 전개 2」, 『한국의 전통산사』 별쇄본, 한국의 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2015.

Abstract

The order of the traditional program of Suryukjae and its aesthetic

Lee, Seong-woon

Research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

The program of Suryukjae(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held in Samhwasa, Jingwansa and Baekwoonsa and so on, which i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urned out to be the combined one following the conduct of Yeongasnjae(靈山齋, Vulture Peak ritual). Its original script is *Gyeolsumun*(結手文; making mudrās) and *Jungryemun*(中禮文; the ritual program in epitome) and it was compiled such that it was suitable for performing during two or three days.

The original program of the traditional ritual has basically the same structure as the current ones such as Doryanggyeolge(道場結界; the Fixed territory for bodhi-mandala), Eomjeong(嚴淨; Complete purification), the invitation of beings for three platforms, the ceremony of bathing them, *Gongyang*(供養; Offering) and Sisik(施食; Banquet). But it dispenses with the ceremony of bathing depending on the full or brief ritual, holds service of offering after inviting beings for three platforms and the conduct of Yeongasnjae and adds Daeryeong(對靈; the rite of calling in the soul) and Bunsujakbeop(焚修作法; The conduct for the extinction of hindrance of karma and the merit), which become standardized. Siryeon(侍輦, the Rite of serving a sedan chair), which became the first ceremony in the current Suryukjae

generally, was a kind of rite of transferring differing from its current concept.

Buyeo Backjae suryukjae is similar to the 17th century Pyeongyang Cheonbyeon in the aspect of the main agent including its purpose and venue and has the idea of complete interpenetration. Also, in terms of its ritual oration and performance, it is completely interpenetrated by being based on the conventional *Gyeolsumun* in its region, accepting the organization of *Cheonjimyeongam beomeum sanbojip*(the collection of Brahma voice of heaven and earth in light and shade) and being actively taken part in by the members of Eosan(the monks or nuns singing a Buddhist ritual song) and its preservation association.

It shows different feature from other Suryukjae getting unified, through realizing Mucha(無遮; no restriction) for the equality in the ritual oration and accepting the difference of the upper and the lower in the ceremony of Byeonsik(變食, changing the food). It plays its natural role in the basic equality of the offering ritual assembly with the altar, the offering ceremony of Byeonsik and participants' dressing. Thus it reproduces the appropriate ritual of its meaning and represents the aesthetic of the equality and the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 of and the assembly for the offering ritual.

Key words

Buyeo suryukjae, the program of Suryukjae, the order of the offering ritual(齋次), Cheonbyeon suryukjae, Gyeolsumun(結手文; making mudrās), Jungryemun(中禮文; the ritual program in epitome), Muryangsa, Samhwasa suryukjae, Jingwansa suryukjae, Baekwoonsa suryukjae.